

우리의 마음은 아름답다

해안쓰담줍기-해남군 금호 해변 일대 (7월 19일)



목 차

02 기자회견문

04 회원기고

06 특별기고

09 활동보고

11 회계보고

13 환경영화 / 서적

14 환경상식

15 우리함께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 어디로 가는가... 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가)옥시애경불매운동본부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중 옥시와 애경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성을 촉구한다.

- 전체 피해자의 0.8% 극히 일부만 신고됐다.
- 피해신고자 4명 중 1명은 사망했다.
- 사망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다.
- 사산, 유산된 태아 피해 많지만 피해자로 분류도 인정도 안 됐다.
- 생존피해인정자중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다.
- 어린이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이들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피해지원정책이 전무하다.
- 사망피해자의 유족 아픔과 어려움을 파악조차 안 한다.
- 중등도 이상의 피해등급수위가 10대에서 높다.
- 피해인정자 10명 중 9명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판정 대기자도 3,154명으로 10명 중 4명이나 된다.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째이다. 위 내용은 2011년 8월 31일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2년 7월 31일 까지 만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의 대한 열 가지 특징이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사회적 대참사가 이토록 엉망으로 흘러가는 상황 앞에서 11년째의 날에 우리는 또다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산업계와 행정, 사법, 입법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어느 분야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11년이 되도록 무엇하나 해결하지 못한 한국사회라니... 이렇고도 지구촌 선진국, 민주국가 운운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전라남도

구분	합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신청자	합계	167	1	4	1	21	1	13	13	12	10	1	39	1	20	4	3	2	5	3	3	3	1	6
	사망	51	0	2	1	6	1	5	1	2	5	0	13	0	7	2	0	0	1	1	0	2	0	2
	생존	116	1	2	0	15	0	8	12	10	5	1	26	1	13	2	3	2	4	2	3	1	1	4
피해자	합계	94	1	2	0	14	1	7	6	7	5	0	26	1	6	1	2	1	3	1	2	3	1	4
	사망	31	0	1	0	5	1	2	1	1	4	0	8	0	3	1	0	0	1	0	0	2	0	1
	생존	63	1	1	0	9	0	5	5	6	1	0	18	1	3	0	2	1	2	1	2	1	1	3



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피해신고자 167명 중 사망 51명 생존 116명, 구제인정피해자 94명 중 사망 31명 생존 63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22곳의 지자체중 목포는 6번째로 피해신고자는 12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명 생존피해자는 10명에 이르지만 구제인정피해자는 7명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사망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투병 중인 생존피해자들도 병마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인정을 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옥시, 애경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 지원되고 희생자가 추모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8월30일 법원은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너무나 늦었고 미진한 판결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2021년 1월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CMIT/MIT 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 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살인기업들의 소비자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사 발생 11년을 맞아 우리 사회 각계가 각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얻고 환경정의 사회정의 사법정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애경 마트에서 **퇴출하라!**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규명과 피해 대책을 민간에 떠넘기며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는 **사과하라!**

2022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가)옥시애경불매목포운동본부

“길냥이와 목포 원도심의 쓰레기 문제

글 | 다겸 회원

오랜 유럽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1년 넘게 제주살이를 하던 중에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진도 팽목바람길 걷기를 위해 들린 목포의 바람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그렇게 ‘영동한’ 동기 하나로 목포 살이를 시작한 나는 ‘맛의 도시’라는 타이틀 저변에 흐르는 ‘목포’의 인심의 젖을 먹고 자라며 목포 살이를 4개월째 하는 ‘목포댁’이다.



한적한 목포 원도심의 주인공들은 길냥이들이다.
© 다겸

‘길치’인 탓에 길을 익혀보려 하기도 하고 내게는 시시각각 미세하게 변하고 다르게 보이는 원도심이 늘 새롭다. 그래서 늦은 밤과 새벽에도 원도심 산책을 유유히 즐긴다. 목포 원도심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독일과 왔다갔다 4년간 지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10년 넘게 뽐혀왔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후 여자 혼자 ‘밤 산책’ 하기에 안전한 살 곳은 처음이다.

때론 많이 한적한 원도심의 밤무대의 진짜 주인공들은 ‘길냥이’ 들이다. 민어회 먹자 골목이며 견해산물 골목 골목 마다 수많은 길냥이들이 깊은 밤이 되면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듯 심게 길 위에서 왈차지껄하다. “아이 이빠~” 그 냥이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감탄하며 말했다. ‘목포가 맛있는게 많아서 애네들은 맛난걸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가봐’ 하는 인간중심의 무지 어린 생각을 하며. 그 무지 어린 생각은 이어지는 원도심의 밤-새벽 산책으로 곧 깨졌다. 밤 9시부터 새벽 2, 3시 사이에 차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길냥이들을 살피는 캣맘과 캣대디들을 우연히 알고 지내고 나서다.

“많은 길냥이들이 구내염을 앓고 있어요.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물이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요.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저는 구내염으로 씹지 못하는 냥이들을 위해 사료를 물에 불리고 그 옆에 마실 물을 뒤요. 개미가 끌면 주민들의 불평이 있을 거여서 사료 그릇을 물에 담긴 스티로폼에 띄워서 두고요. 한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히 그 시각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 냥이들을 봐요. 살 수 있는 동안까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어요”

캣맘과 캣대디를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다고도 한다. 그냥 놔두면 다 죽을텐데 왜 살려줘서 일을 복잡하게 하나는 거다. 그런데... 버려지고 병들어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길냥이들을 만든건 우리 인간인데 생명을 그렇게 다루는 것을 고치지 않고 또 다시 방치하다 죽기를 기다리는게,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게 ‘생명’인 우리들이 해야할 작태일까? 그것도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어 ‘도덕’이며 도덕을 기반으로한 윤리와 법으로 살아가



▶ 밤산책때 만난 어여쁜 길냥이. 원도심에는 고양이 골목도 있다. © 다겸



주민들이 직접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서 내놓는 지금의 목포 원도심 현실. © 다경

는 우리, 인간이?

가을이 되어 혹은 지구 온난화로 태풍이 잦다.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비바람이 세차할 때 나는 목포 원도심 길거리 위에 쓰레기차를 기다리는 날마다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찢겨 원도심 길거리에 날아다닐까 걱정이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위생적으로 심각하지만 길냥이를 비롯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않는 작고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도 위협이다.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목포 원도심만 일괄적으로 지정된 안전한 쓰레기장이 없어 '주민들끼리 암암리에' 지정한 '아무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제주와 달리 밀폐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및 장소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용 '통'을 사서 분리수가 날짜에 맞춰 집앞에 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위생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과 여러면에서 사회적인 체계가 잘된 남한 사회에서 보기 힘든 이 현상이 왜 목포에서 방치되 듯 일어날까? 주위에 이 모순에 개탄하는 목포 시민들을 줄곧 만났다. 그런데 목포로 이사를 오고나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고,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 담당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도 전화를 몇번이나 해서 물었지만 담당자들마저 정확히 아는 것이 없다. 나는 결국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하청 받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운전기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나는 '주민의 의식문제'보다 '행정의 허술함'을 본다. '행정'이 먼저 알고 정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하기보다, 원도심 곳곳의 쓰레기를 모아두는 너저분한 길거리에 행인이 지나가면 '쓰레기 무단 투기시 고발조치를 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게 하는 감시 카메라만 준비한 것이 지금의 목포 원도심에서 벌어지는 행정임을 본다. 어느 삶의 터전보다 척박한 삶속에서도 잃지 않은 인심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여전히 지닌 이 목포 원도심 주민들에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목포의 행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스스로를 비춰볼 수 없을까?

오늘도 또 다른 태풍 '남마돌'의 세찬 바람에 목포 원도심은 소용돌이 친다. 나는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목포 원도심과 길냥이들이 걱정이다.

▶ 제대로 된 쓰레기통도 구비되지 않은 지금의 목포 원도심 현실. © 다경



나의 탐조이야기 - 루미 루미 두루미

글 | 이진아 활동가

▶ 제2회 2022년 이꽃새봄문학상에 공모하여 다분히 편파적인 심사를 거쳐 당선된 작품입니다. 작성된 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새의 눈을 바라보면 눈물이 난다는 그의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언제부터 새에 관심을 가졌을까. 처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100일간 새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100일을 꼭 채워 들고 나면 어떻게 궁금했다. 하루 한 마리 새 사진이 올라오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50초간 새소리가 들린다. 모든 동작을 멈추고 온 신경을 세운다.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글로 잘 표현하고 싶었다. 첫날 들은 새소리는 박새였다. 들리는 대로 새소리를 적는데 같은 소리를 듣고 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서 쿡쿡 웃음 나왔다.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기에 100일 중 90일 정도 인증했다. 새소리 듣기를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귀에 새소리가 들리고, 새가 잘 보인다. 길 가다가 새소리가 들리면 멈춰 서서 두리번거리며 새의 위치를 찾는다. 등산하다가도 새가 있을까 조용히 귀 기울여본다. 새를 만나면 휴대폰 카메라로 재빠르게 찍어야 하는데-선명하게 잘 찍고 싶다는 욕심에-번번이 타이밍을 놓치지만, 짜릿하고, 만남이 반갑다.

새를 좋아하냐고 물으면, 조금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기에는 머뭇거리진다. 좋아한다면, 진심이어야 하고 새에 대해 자주 생각해야 한다는 나만의 기준이 붙는다. 몇 번의 탐조 경험은 새에 대한 애정을 싹 틔우기 충분하다. 탐조는 '버드 워처'라고 한다. 자연 상태의 새들의 모습, 울음소리 등을 관찰하거나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처음 새를 관찰할 때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쫓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지긋이 새를 들여다볼 줄 안다. 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기념일을 맞아 짝꿍에게 두루미를 보러 가자고 했다. 우연히 인천 강화도에서 진행되는 두루미 탐조 소식을 알게 되었다. DMZ에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두루미를 볼 수 있을까 설레며 신청했다. 의미를 덧붙이자면 우리 사이도 두루미처럼 깊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살포시 담겨있다.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이 바로 두루미이다. 평균 60년을 산다고 한다. 두루미는 2개의 알을 낳는다. 가족단위로 움직이는데 개체 수 보존을 위해서는 4마리가 이상적이다. 이동 중에 안타깝게 새끼를 잃으면 3마리가 되고, 부부만 남은 2마리 두루미를 볼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종의 새끼도 거두어 기꺼이 가족이 되는 두루미를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다. 버스 유리창 너머 풍경은 생경했다. 빙어를 잡는 사람들이 보였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언 바다, 갯벌의 모습을 처음 봤다. 누군가 알래스카 같다고 말했다. 점심을 간단히 사먹고 어슬렁거리며 갯벌을 구경했다. 선명한 새 발자국을 발견했다. 저어새, 두루미 사이에서 발자국의 주인이 누굴까 궁금했다.



바로 탐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교육(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여상경 대표)을 들었다. 전 세계 두루미 종류는 15종으로, 우리나라에만 7종(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쇠재두루미)이 산다고 한다. 두루미가 어떤 새인지 알고 만나면 더 정감이 간다는 강사님의 설명을 옮겨 적는다. 강화도 하면 순무를 생각하지만, 넓은 갯벌이 강화도를 대표한다.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라는 이름으로 갯벌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다. 저어새는 여름 철새로 서해안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고, 잠도 잔다. 저어새가 다른 월동지로 이동하면, 겨울 철새 두루미가 강화도로 와서 지낸다.



‘두루미’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한번 듣고 나면 잊히지 않는다. ‘두루루루~’하고 울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순우리말이다. 두루미는 150cm로 내 키보다 작지만, 몸무게는 10Kg이다. 타조 다음으로 크지만 날 수 있다는 점이 독보적이다.

새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두면 멀리서도 구분하기 쉽다.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된 두루미 유조는 털색이 전반적으로 갈색이다. 일 년이 되면 성조 두루미처럼 머리에 붉은색이 생긴다. 흔히들 깃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닭 벼슬 같이 돌기 하나하나가 피부이다. 두루미도 흥분하고 성이나면 머리에 붉은 기운이 크게 맴돈다. 평온해지면 크기가 수축한다고 한다. 두루미의 감정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그만큼 순수한 녀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루미 날개는 바깥부터가 첫 번째, 중간이 두 번째, 가장자리 안쪽이 세 번째 날개이다. 첫 번째 날개는 흰색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날개는 검은색이다.

가까운 순천에 겨울철 흑두루미를 볼 수 있다. 인천의 시조도 두루미인데 목포의 시조도 학으로 같다. 과거 목포 삼학도에도 두루미가 있었을까. 지금은 자취를 쉬이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삼학도의 ‘학’은 두루미를 의미한다. 삼학도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삼학도 이름처럼 두루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교육을 마치고, 두루미가 있는 동검도로 이동했다. 추위와 기다림 속에서 탐조 장비 쌍안경을 꺼내들고, 두루미를 찾았다. 쌍안경의 두 초점이 하나의 원을 그리도록 조절해서 보면 된다. 꽤 먼 거리에 두루미를 발견했고,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따로 영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총 16마리의 두루미를 봤다. 4마리, 3마리, 2마리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두루미들을 봤다. 갯벌 깊숙이 부리를 넣고, 먹이를 찾고 있었다. 망원경 위에 휴대폰을 덧대어 사진 찍었다. 두루미는 풍부한 생태보고 갯벌에서 게, 갯지렁이, 염생식물 부리 등을 먹는다. 찰박거리는 습지나 갈대밭에서 적을 피해 쉬거나 잠자기도 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습지가 말라가고, 화재로 인해 갈대숲이 사라지고, 개발로 인한 건축 등 두루미 서식지가 줄어든다고 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탐조활동으로 새들의 생태환경 조사, 기록 등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친 관심은 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 드론을 조종해 바짝 따라다니는 것은 새를 괴롭히는 것이다. 쉬고 있는 새를 놀래서도 안 된다. 화들짝 놀라서 날 때



새들의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크다고 한다. 새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갯벌이 얼어 먹을 게 없는 새들을 위해 곡식 낱알, 옥수수 등을 부려주면 먹이 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 본 두루미를 나중에도 다시 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루미를 보기 전에는 큰 새는 매섭고, 무섭다는 생각을 마냥 했다. 직접 본 두루미의 눈은 예뻐다.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진 까닭일까. 새의 눈망울이 밤처럼 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두루미의 뺨뺨해진 배를 보면, 괜스레 흐뭇하다. 든든하게 먹었구나. 남은 여행 잘하고, 내년에도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싶다.

새들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도 많다. 참새, 비둘기, 피꼬리, 까마귀, 까치, 닭, 오리, 기러기, 도요새,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갈매기, 매, 할미새, 직박구리, 박새 등이 있다. 특정 철새 도래지, 서식지가 아닌 경우에 새를 보러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가까운 집 주택이나 아파트 주변, 공원, 강하천, 바다 갯벌, 산 근처에서 탐조를 가볍게 시작해 보면 좋겠다. 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깃털색, 다리색, 부리모양 등을 보면서 새 사진을 찍어보고, 스케치 그림도 그려보자. 새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의 시선도 확장되고, 넓혀진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새를 지켜보자



따뜻한 격려와 다정한 축하 속에서
지난 9월17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마운 마음 깊이 간직하며, 알콩달콩 잘 살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진아 활동가 올림 -



- 05일(화) 새활용 관련 업무회의 / 해남 해안정화활동 대상 현장 점검
- 06일(수) 비오템 해안정화활동 관련 산이면사무소 협의
- 07일(목) 목포한빛초등학교 환경교육
- 08일(금) 목포시민신문 기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 09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도심속 완충녹지, 17명) / 청소년환경기자단(탐조한 조류 스케치)
- 11일(월) 삼호서초등학교 환경교육
- 12일(화) 나주시 라온유치원 환경건설팅 / 삼호서초등학교 환경교육 / 6.15집행위 회의
- 13일(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교육 (김태수, 최순재, 이현승, 이진아)
- 14일(목) 현장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조류분야/이현승, 이진아) / 7월 19일 해양정화 관련 회의
- 15일(금) 현장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조류분야/이현승, 이진아) / 무안일로초등학교 환경교육
- 18일(월) [업무협약]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 목포연안환경미술행동 전시회 관련 목포시장 초청 공문 발송
- 19일(화) 창립25주년 수익사업 회계 정리 / 비오템 해안정화활동(해남군 산이면 16명)
- 20일(수) 세월호 대표자회의 / 공공기관과 새활용 증대를 위한 협의
- 21일(목) 제245차 집행위원회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들과 통화 /
2022연안미술행동 전시회 안내-〈플라스틱 자취 완연하다〉 / 녹색연구회 창립기념 영화감상 웹자보 제작
- 22일(금) 2022연안미술행동 전시회 지원 / [공문발송]서산온금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송부 요청 /
[기자회견]목포시 청소년 100원버스 시행 촉구
- 25일(월) 향도여자중학교 환경교육 / 건강보험 대책위 회의
- 26일(화) 향도여자중학교 환경교육
- 27일(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워크숍(온라인)
- 28일(목) 제130호 소식지 발송
- 29일(금) 세월호 진도 팽목항 지킴이(최송춘, 이진아)

● 7월 9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도심속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 7월 9일(토) 청소년환경기자단(탐조한 조류 스케치)



● 7월22일(금) 목포시 청년 일자리통합센터와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업무협약 체결



● 7월22일(금) 2022연안미술행동 전시회-〈플라스틱 자취 완연하다〉





- 01일(월) 대연초등학교 석면모니터링 / 녹색연구회 창립34주년 기념 영화관람 안내 웹자보 회원 발송
- 02일(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4차(해남 목동리, 진도 하조도)
- 03일(수) 삼학도 민간호텔 건립 관련 박홍률시장 공식입장 요청서 작성(초안) /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관련 취재요청서 발송
- 04일(목) 산지관리위원회(나주) / 청년일자리센터 환경교육(1차시: 임경숙) / [기자회견]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 05일(금) 대연초등학교 석면모니터링 / 옥시·애경불매 운동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 06일(토) 세월호 신항 버스 지킴이
- 07일(일) 녹색연구회 창립34주년 기념 영화 관람(독립영화관 MM)
- 08일(월)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 강의 홍보 / (가)민중행동 준비회의(oz)
- 09일(화) 제9회 에너지의 날 SNS 홍보 / 함께사는길 발송 /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관련 서명안내 (카카오톡)
- 10일(수) 목포교육청 탄소중립 관련 제안서 초안 작업
- 11일(목) 목포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환경교육-습지 보전의 의미(2차시: 김경완)
- 12일(금) 삼학도 관련 KBC 라디오 인터뷰(최송준) /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강사단 회의
- 13일(토) 청소년기자단-생태신문 만들기(9명 참여)
- 16일(화) 운영회원 모임 안내 웹자보 작성 / 매장내 1회용품 신고 회원 안내 / 청소년기후행동 회의 / 도시재생지원센터 9월 쓰담걷기 논의
- 17일(수) 광주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사전 답변 발송 / 제9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부스 물품 사전 준비 / 924기후정의 행진 지원신청서 제출
- 18일(목) 924기후정의 행진 온라인 홍보 / 제9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부스 운영 / 운영회원 함께밥상 참여 요청 문자 발송 /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 및 연수
- 19일(금) 제246차 집행위원회 회의 준비
- 20일(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참교육상 단체부문 수상
- 22일(월) TBN 라디오 인터뷰(환경운동연합 활동 영역) / 해안동 발전 추진위원회 면담 / 도시발전사업단장 면담 /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 재심의 내용 정보공개와 목포시장 면담 공문 발송 / 에너지의 날 / 프리하당 관련 실무자 회의
- 23일(화)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교육(제로웨이스트)
- 24일(수) 제246차 집행위원회 / 9월 쓰담걷기 사전답사(압해도 송공리)
- 25일(목) 호남권생물자원관 조류 분류 현장학습 /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환경교육
- 27일(토) 전국 대표자 임시회의(대전)
- 29일(월) 영산강 하류 녹조 조사(취수)
- 31일(수) (기자회견) 옥시·애경 규탄

• 8월 6일(토) 세월호 신항 버스 지킴이



• 8월 7일(일) 녹색연구회 창립34주년 기념 영화(아침의 노래, 정태춘) 관람(독립영화관 MM)



**건강보험료 폭등 불려올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중단**

건강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

• 8월 9일(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관련 서명안내



• 8월 20일(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참교육상 단체부문 수상

(유)세라돌/(주)그린큐브/(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신아에이치에스/
 (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국순천/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뜰/디자인중앙(진선화)/
 만인계마을기업/만택루씨의원/목포대성신탁/시네마mm/영암일보(주)/코롬방제과점/
 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
 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구봉선/권가별/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
 김경애/김경완/김경주/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
 김나영/김대중/김대현/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말금/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
 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욱/김병철/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희/
 김수린/김수미/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
 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경/김유현/김윤임/
 김은경/김은미/김은희/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김지수/김지숙/
 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우/
 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효정/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
 노천우/다겸/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용철/류재청/마홍식/모원중/무관/문보현/문성중/문성현/문원규/문정임/
 문지영/문호/문호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철/박기훈/박대성/
 박대현/박동구/박동환/박문욱/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병삼/박상현/박선옥/박성수/박성영/박성욱/
 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수인/박순미/박안섭/박영운/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
 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범/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수/박종위/박진/박창수/박창우/박창현/
 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백동진/백성숙/
 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영옥/서정/서정만/서한배/설단숙/설지연/성보석/
 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동주/
 신원/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정배/양덕수/양수민/양승미/양승희/양영숙/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현주/
 양환/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문환/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하늘/
 오현자/오현주/우성주/위라겸/위준철/유경호/유기성/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
 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
 이경석/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금희/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
 이송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영숙/이영주/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
 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석/이정식/이정원/이종환/이주연/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
 이창현/이충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혜령/이혜용/이화/임경숙/임광휘/임성기/임성진/
 임은아/임은희/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장근현/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
 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항금/장희웅/전경민/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준수/전현호/
 전형숙/정경순/정고운/정대호/정동욱/정미라/정병이/정상문/정성배/정세영/정수민/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
 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유나/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일/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
 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권/정홍조/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민/조옥현/조완오/
 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지이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선미/차용만/차용훈/
 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운/
 최승희/최양선/최영란/최영섭/최영숙/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
 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양규/한은섭/한추희/허진홍/
 현인숙/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회비 납부
07~08월
 2022년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6,416,000
	단체회비	190,000
소 계		6,606,000
사업수익		230,000
후 원 금		300,000
기타수익		15,000
이자수익		0

07월

- [사업수익] • 생태기행 참가비 8만원
 • 이현진 소식지 광고 후원 5만원
 • 제갈경희 소식지 광고 후원 5만원
 • 문안나 소식지 광고 후원 5만원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진지연 10만원
 • 장유선 5만원
- [기타수익] • 임재형 1만 5천원

당월수입금	7,151,000
전월이월금	3,878,381
합 계	11,029,381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100,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100,000
	연대사업	250,000
소 계		450,00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27,500
소 계		27,500
인 건 비	급 여	5,984,460
	복리후생비	1,412,44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542,799
소 계		7,939,699
업무추진비	출 장 비	140,000
	활 동 비	100,000
소 계		24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0
	통신광열비	442,330
	소모품비	0
소 계		442,33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0
	보 험 료	162,680
	원천징수분	71,500
	지급 수수료	578,281
소 계		912,461
당월지출금		10,011,990
통장 잔액		1,017,391
합 계		11,029,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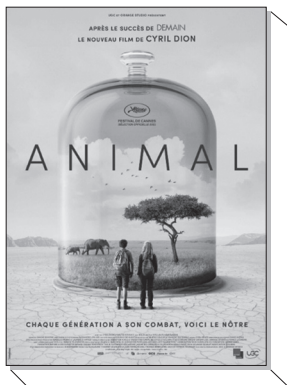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10,231,000
	단체회비	345,000
소 계		10,576,000
사업수입		7,068,860
후 원 금		400,000
기타수익		0
이자수익		6,137

08월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디자인그리다/디자인공장 소식지제작후원 25만원
- [이자수익] • 이자수익 26원
 • 이자수익 6,111원
- [사업수익] • 사업수익 7,068,860원

당월수입금	18,050,997
전월이월금	1,017,391
합 계	19,068,388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549,5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0
	연대사업	646,880
소 계		1,196,38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74,000
소 계		74,000
인 건 비	급 여	6,004,460
	복리후생비	14,666,600
	상 여 금	1,960,080
	퇴직적립금	546,132
소 계		9,977,272
업무추진비	출 장 비	169,200
	활 동 비	80,000
소 계		249,2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40,000
	통신광열비	302,350
	소모품비	19,600
소 계		861,95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131,780
	보 험 료	100,000
	원천징수분	71,500
	지급 수수료	427,095
소 계		830,375
당월지출금		13,189,177
통장 잔액		5,879,211
합 계		19,068,388



애니멀 Animal

다큐멘터리 | 106분 | 2021년 | 감독: 시릴 디옹 Cyril DION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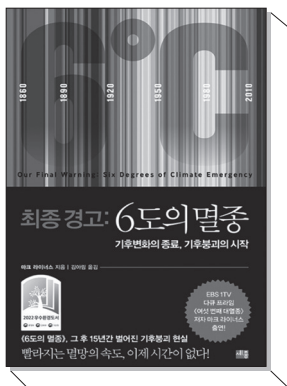
열여섯 살의 벨라와 비플랑은 자신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기후변화와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어 50년 안에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 즉 살아 숨 쉬는 세상과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한다.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는 놀라운 여정 속에서 이들은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구하는 일이 곧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도 결국은 동물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노트

“마지막 남은 코아이 새가 존재하지 않는 짝을 찾아 지저귀는 울음소리, 나무를 베는 전기톱의 회전 소리, 바다로 내리 꽂히는 작살과 사냥터의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 이것이 멸종의 소리이다. 멸종은 깎여 나간 열대우림,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 바다의 모습이다. 멸종은 배기가스와 오염의 냄새이다. 멸종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종말이며, 절망의 감각이다. 나의 세대는 플라스틱 오염, 권력이 다른 모든 것의 우위에 있는 세상을 목격하고 있다.” 「애니멀」은 16살 소녀의 위와 같은 선언으로 시작한다. 밝은 미래를 꿈꾸어야 할 어린 세대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 위기에 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던 영화 경이로운 생명들과 함께 절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영화는 흥미롭게 보여준다.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 기후변화의 종료, 기후붕괴의 시작

마크 라이너스 지음 | 김아림 옮김 | 세종 | 2022년 1월 14일 출간

“〈6도의 멸종〉 이후 15년, 현실이 된 붕괴”

15년 전 출간된 〈6도의 멸종〉에서 예상한 기후 재난 시나리오가 낭설로 밝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후에 관한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생하게 그려낸 이 책의 내용은, 불행하게도 15년 동안 하나하나씩 착착 들어맞고 있다. 걱정했던 일들은 현실이 되어있고 심지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막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 대재난 또한

모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터질 것이다. 15년이 지나 한국어판 서문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판이 나온 이유는 긴박한 최종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이 책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한국어판 서문의 첫 문장을 읽고 몸이 얼어붙었다. “어떤 면에서, 2021년이라는 시점에 쓰는 글은 기후문제에 대한 최후의 낙관론일지도 모른다.” 여러 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늦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이상 이 명확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기온의 상승을 막아선다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면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책은 희망을 향한 싸움에 동참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건넨다.



책과 영화를 보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환경 HOT 키워드 '그린 리모델링'

여러분~ 9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여름 유독 많이 발생한 이상기후도 따지고 보면 자원순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그럼 오늘 함께 자원순환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동까지 살펴볼까요?

매년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

일상생활 속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은 생산부터 처리 과정까지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이에 환경부와 한국폐기물 협회는 자원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9년 9월 5일 '자원순환의 날'을 매년 9월 6일로 지정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왜 9월 6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숫자 '9'를 뒤집으면 '6'과 똑같은 모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또 다른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순환'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요!



또한 지난 8월 30일, 환경부에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폐기물의 재활용이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상 속 자원순환을 위한 운동, 5R 실천해요!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원순환 실천 행동, '5R'! 푸루와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불필요한 물건 거절하기(Refuse) 배달 시 일회용 수저, 먹지 않는 반찬 등을 거절하며 쓰레기를 줄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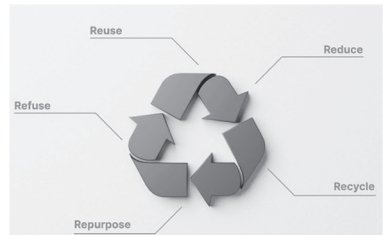
둘.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Reduce) 장을 볼 때 미리 구매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요!

셋. 물건 재사용하기(Reuse) 사용한 용기는 씻어서, 고장 난 물건은 고쳐서 재사용해요!

넷. 올바르게 재활용하기(Recycle) 재활용품은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해요!

다섯. 자연 분해되는 물건 사용하기(Rot) 천연 펄프 100% 물티슈 등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소재의 제품 이용해요!

자원순환을 위한 5R 운동, 생각보다 간단하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를 위한 한 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자원순환의 날에 담겨있는 의미와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동까지, 잘 확인하셨나요? 보다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의 날에 대해 알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일상 속 자원순환 행동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환경사랑!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영광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광주·전남 1만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빛 1, 2호기는 1986년 가동 이래 격납건물 내 수 백 개의 공극 발생, 1000여개가 넘는 철판 부식, 제어봉 낙하사고, 증기발생기 사고 등 100건 이상의 사고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부실 시공 핵발전소로 평가 받는 한빛 원전이 40년의 설계 수명을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경고했듯이, 핵 발전은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로도 위험을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광 핵발전소의 사고는 불과 35km 떨어진 광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핵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 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2025년 탄소중립조정제도로 애플, BMW 등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100%만 사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친원전 정책은 수출 길도 막히는,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일입니다.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에 드는 비용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빛원전 내에 임시 저장 중인 핵폐기물이 수년 내 포화 상태에 도달해 더 이상 핵발전소 운영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전국 24기의 핵발전소에서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는 안전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마다 핵연료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조차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와 의 전쟁 중입니다. 화석연료를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급속하게 전환 중입니다. 안전하고, 값싼 핵 발전은 없습니다.

지금 지불하지 않은 위험과 비용은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핵 발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래 세대와 말 못하는 생명들, 가난하고 취약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전가 될 뿐입니다. 지금도 수 십 년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 핵사고와 건강 피해 우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2. 07. 11. ~ 2022. 09. 30.)

정대호(최송춘) | 정세영(자발적) | 박수인(김애숙) | 한추희(박유진) | 이금래(임경숙)
김윤호(임경숙) | 김창숙(윤명수) | 송다희(임경숙) | (주)신아에이치에스(임경숙) | 박미숙(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비누 | 세탁용 (1g당) : 8원 고행비누 | 세탁용 (250g) : 1,500원
 | 주방용 (1g당) : 9원 |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져 오시면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평일 (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 폐식용유를 가져오시면 강청비누로 교환해 드립니다



자연을 대출하면
미래는 파산합니다.

김종국 회원

※ 이미지 참고(한국언론진흥공단)

포마린

혼다V6 / 아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FOUR MARINE
SINCE 1994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해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손현 회원

※ 이미지 참고(환경부)

“ 못된 사람은 歷史가 審判하고
우리의 바보짓은
自然이 審判한다
故 서한태 박사님 말씀 중에서 ”

목/포/어/목 **오션당**
최영섭 회원

편집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그라디 (061) 287-0146, 010-3888-0145